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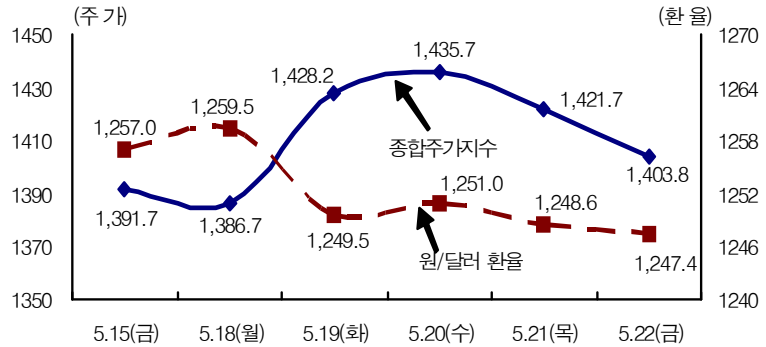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유동성 풍요 속 기업의 자금난**
- 시중 부동산금 평가와 활용 방안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15~5.22)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유동성 풍요 속 기업의 자금난	
- 시중 부동산 자금 평가와 활용 방안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금융경제실 : 현 석 원 연구 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조 호 정 연구 원 (3669-404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유동성 풍요 속 기업의 자금난 - 시중 부동산금 평가와 활용 방안

1. 풍요 속의 빈곤

시중의 단기유동성이 4월말 8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유동성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저금리 정책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대규모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성 자금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유동성 증가를 과잉유동성으로 볼 수는 없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GDP대비 시중부동산금 비중 평균 기준으로 보면, 투기적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금은 135조 원에서 232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유동성은 많이 풀렸지만 실물 부문으로 원활히 유입되지 않아 기업들의 자금난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 차례에 걸친 한은의 금리 인하로 본원통화가 2009년 3월 32.5%까지 증가하였으며 협의통화(M1)는 14.3%까지 증가율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돈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화유통속도를 보면, 2007년 0.81에서 2008년 0.749로 떨어졌으며 특히 4/4분기 0.703까지 내려갔다. 또한 은행대출 등 민간 신용이 증가하지 않아 M2와 L의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초단기유동성인 M1은 증가했으나 6개월이상 2년미만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광의통화(M2)는 2008년 5월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에서 2009년 3월에는 11.1%까지 하락하였다. 금융기관 유동성(Lf) 또한 같은 기간 13.1%에서 8.4%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업 부문으로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8년 1월 4.75%에서 2009년 2월 10.4%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폭은 미미하여 기업들은 유동성 풍요 속에 자금난을 겪고 있다.

2. 기업 자금난 지속의 배경

시중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기업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요인은 은행기관 건전성 우려, 기업 리스크 증가, 투자처 부재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은행의 수신 감소와 연체율 증가로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실질 금리 하락으로 인해 장기 저축 유인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준 금리 인하 영향으로 정기 예금 수신 금리는 2008년 10월 6.28%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3월 현재 2.90%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의 연체율은 3월 2.31%에서 4월에는 2.04%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년말 1.46%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은 전년말 0.34%에서 3월 현재 0.70%로, 중소기업은 1.7%에서 2.32% 증가하였다.

둘째, 기업의 신용 위험 증가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2008년 10월 전월대비 7.3조 원에 달했던 국내 은행 기업 대출은 2009년 4월 3.2조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 지속에 따른 신용 위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1/4분기 산업재, 소재산업 등 주요 산업의 기업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산업재의 경우, 매출액은 8.64%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이 -22.7%를 기록하였고 소재산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44.7%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2009년 1/4분기 47로 2008년 1/4분기 38에 비해 악화되었다. 대기업도 2009년 1/4분기 19로 전년동기대비 10포인트 상승함으로써 신용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대기업의 2/4분기 전망치는 2로 신용위험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처가 미흡하여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신용 위험이 확대되면서 경제 주체별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자금을 단기 상품 위주로 운용하는 경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말 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 수신이 655.0조 원에서 2009년 3월말 697.2조 원으로 42.2조 원이 증가하였다.

3. 시중 부동산 자금 활용 방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기업 부분으로 원활히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은행 대출 기피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은행이 보유한 기업 대출 채권, 저축은행 PF채권 등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활한 기업 대출을 위한 금융권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단기 유동성 부족에 의한 흑자 도산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출의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황기에는 호황기 때에 비해 적립규모를 낮춰 신용 경색을 완화시켜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회사채가 편입되는 채권담보부증권에 대한 보증 한도를 증가시키거나 채권펀드에 대한 비과세 대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기업 인수합병 펀드, 신용 위험 분산 상품 등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 인수합병 펀드, 기업 신용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 부문으로 자금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대출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증권(MBS)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직접금융 상품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 정부 및 민간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기업의 대출 및 회사채 발행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유동성 풍요 속 기업의 자금난 >

풍요 속의 빈곤	
본원통화 풍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자금 2009년 4월말 800조 원을 넘어섬 - 본원통화 2009년 3월 32.5%까지 증가 - 협의통화 2008년 10월부터 급증하면서 2009년 3월 14.3% 기록
유동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유통속도 2008년 3/4분기 0.748에서 4/분기 0.709로 하락 - M2 증가율 2008년 5월 15.8%에서 2009년 3월 11.1%로 하락 - 금융기관유동성 동기간 13.1%에서 8.4%까지 하락

기업 자금난 지속의 배경	
은행의 건전성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 금리 하락으로 인해 정기 예금 감소 · 2008년 10월 19조 원에 달한 정기 예금 수신 증가액이 2009년 3월 - 1조 7,000억 원 기록 - 은행 연체율 전년말 대비 높은 수준 · 대기업 연체율 전년말 대비 0.34%에서 0.70%로 증가 · 중소기업 연체율은 1.7%에서 2.32%로 증가
기업의 신용 위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10월 전월대비 7.3조 원에 달했던 국내 은행 기업 대출은 12월에는 -6.6조 원으로 감소하였고 여전히 낮음 - 2009년 1/4분기 산업재, 소재 산업 등 주요 산업의 기업 영업이익 큰 폭 감소 - 중소기업 신용위험 지수는 2009년 1/4분기 47로 대기업 19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2/4분기 전망 22로 악화
단기 금융상품 유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단기 금융상품으로의 유입 확대 - 2008년말 655.0조 원에서 2009년 3월말 697.2조 원으로 42.2조 원 증가 · 42.2조 원 증가액 중 MMF 자금이 69.9% 차지

시중 부동산자금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자산관리공사의 중소기업 위험 자산 매입 등을 통한 은행권 건전성 강화 - 둘째, 흑자 도산 방지를 위해 금융권에 대한 대출 보증,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등의 정책 지원 지속 - 셋째, 기업구조조정 펀드, 회사채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장기 투자 금융 상품 등의 개발과 시장 활성화 - 넷째,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 	

< 참고 > 시중 부동산자금의 개념과 평가

○ 시중부동산자금의 개념

- 시중 부동산자금은 일반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6개월미만 단기 수신액의 합을 의미
 - 한은의 '2007년 7월 광의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단기유동성은 M1현금 및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및 만기 6개월미만금융상품으로 추정
 -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은행권 상품(요구불예금, 6개월이하정기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CD, RP, 표지어음), 투신권(단기채권형 펀드, MMF), 증권사 발행어음, CMA 예탁금), 증권(고객예탁금) 등임

○ 시중부동산자금의 규모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추정하는 시중 부동산자금은 2009년 4월말 현재 811.3조 원으로 발표
 - 한은 및 금융투자협회 등 공식 발표하는 시중 부동산자금 항목을 토대로 집계한 액수는 2009년 3월말 697.2조 원으로 811.3조 원과 약 120조 원 차이 발생
 -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이외에 금감원이 제 3금융권 등 자체적으로 조사 가능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 시중 부동산자금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정
 - 증가율로 보면, 누적기준 전년동기 대비 2005년말 12.5%, 2006년말 10.5%, 2007년말 3.5%, 2008년말 11.8%의 추이를 나타냄

○ 하지만 국내 경제 규모 대비 시중 부동산자금 추이를 보면, 과잉 부동산자금이 라 할 수 있는 규모는 135조 원에서 232조 원 정도인 것으로 평가됨

- 외환위기 이후 2008년까지 과거 10년간 명목 GDP 대비 시중 부동산자금의 비율 평균은 56.6%로 나타남
 - 2008년말 명목 GDP의 56.6%는 579조 원에 해당되므로 금감원 추정 811조 원 기준으로는 232조 원, 과소 추정된 697조 원 기준으로는 118조 원 정도가 최근에 과도하게 늘어난 부동산자금 규모라 할 수 있음
- 한편, 주식시장 투자가 바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MMF, CMA, 고객예탁금에 유입된 부동산자금만을 보면 2009년 3월말 현재 약 135조 원 정도임
- 따라서 현재 과거 10년보다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자금 규모는 대개 135~232조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1. 풍요 속의 빈곤

○ 한국은행이 10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3.25%p 인하함으로써
본원통화와 협의통화는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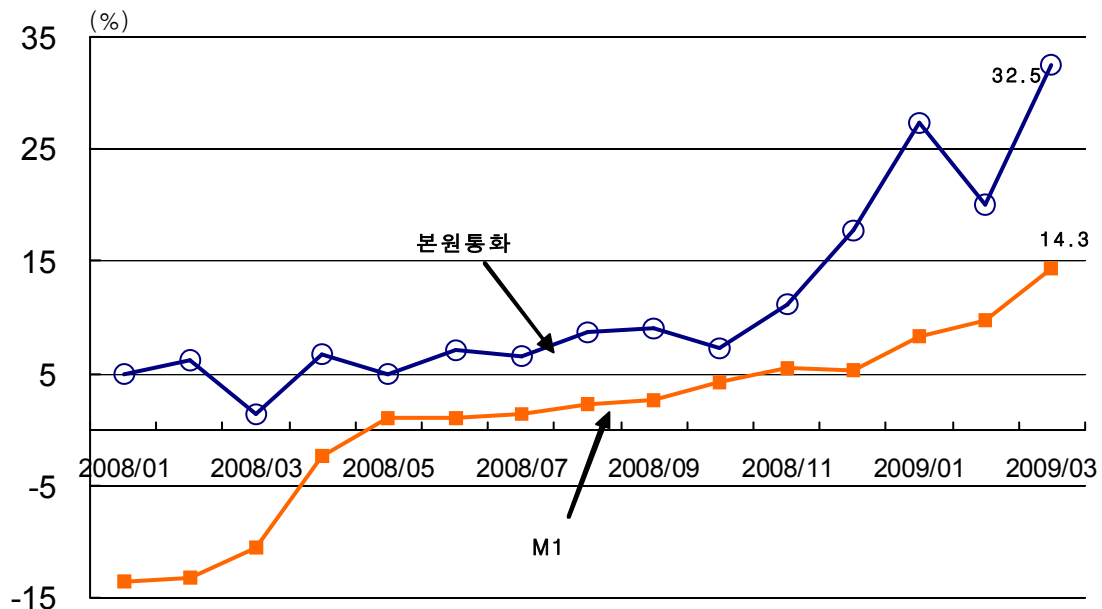
- 기준금리 사상 최저치

·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3.25%p 인하하여 2009년 5월 현재 사상 최저치인 2.0%를 기록

- 본원통화 및 협의통화(M1) 급증

· 본원통화 증가율은 2008년 10월부터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2009년 3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32.5%까지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증대됨
· 2008년 4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협의통화도 10월부터 급증하면서 2009년 3월 전년동기대비 14.3%까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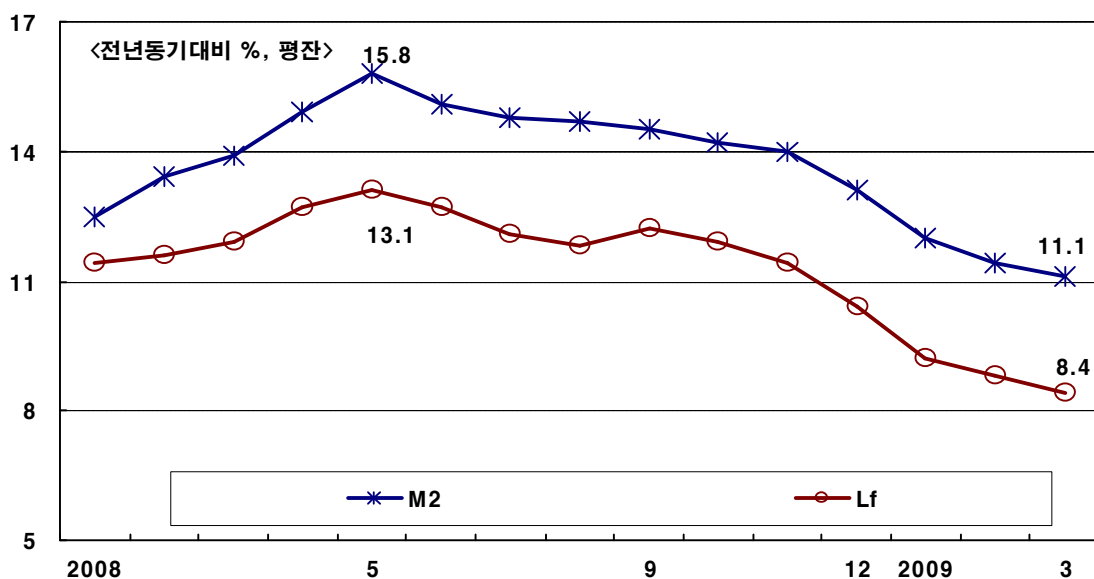
< 본원통화 및 협의통화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본원통화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화유통속도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실물 부문에 돈이 원활히 흐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화폐 공급에 비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지 않아 통화유통속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통화유통속도(명목GDP/M2)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화폐 공급은 늘었지만 돈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 2000년 이후 통화유통속도는 2004년 0.889까지 상승한 후 2008년 0.749로 떨어졌으며 특히 4/4분기에는 0.703까지 하락
- 또한 광의통화 및 금융기관유동성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 등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
 - 광의통화(M2) 증가율이 2008년 5월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에서 3월 11.1%까지 4.7%p 하락
 - 금융기관유동성(Lf)의 경우, 2008년 5월 전년동기대비 13.1%에서 2009년 3월 현재 8.4%까지 하락함

< 광의통화 및 금융기관유동성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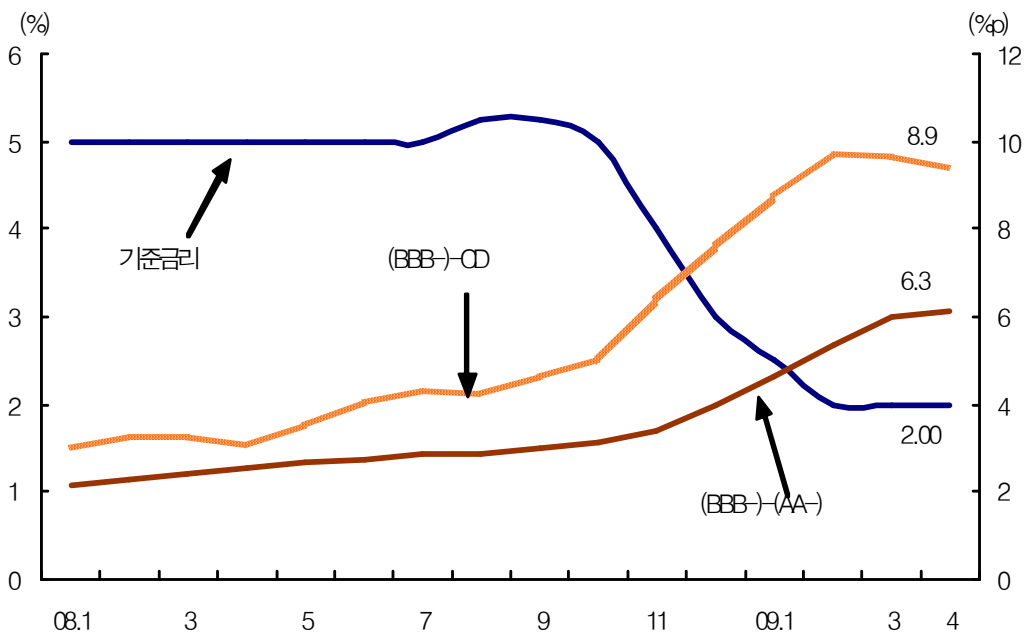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그 결과, 최근에 들어 회사채 BBB-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기준 금리 하락 폭에 비해 하락 정도는 미미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부담이 큼

-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 확대

- 회사채 BBB- 금리는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월 평균 12.4%까지 급등한 이후 4월에 들어 평균 11.81%로 소폭 하락세를 보임
- 회사채 BBB- 금리가 2009년 2월 3일 12.55%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5월 21일 현재 11.31% 수준으로 여전히 금리가 높아 시중의 돈이 기업으로 제대로 유입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CD 금리와의 스프레드는 5월 21일 현재 8.9%p로 2008년말 8.09%p보다 확대된 상황임
- 다만 회사채 AA- 금리는 2008년 11월 평균 8.56%에서 4월 평균 5.68%까지 떨어짐
- 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져 있는 가운데 시중 부동산금은 급증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스프레드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2. 기업 자금난 지속의 배경

○ 정기 예금 수신 감소와 연체율 증가로 인한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 실질 금리 하락으로 정기 예금 수신 감소

- 실물경기 악화 방지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로 실질 금리가 낮아지며 장기저축 유인은 크게 악화
- 정기예금 수신 금리는 2008년 10월 6.28%까지 상승했으나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9년 3월 2.90%까지 하락함에 따라 저축 유인이 크게 감소
- 이에 따른 금리 경쟁력 약화로 1월 2.6조 원, 2월 4.9조 원 증가에서 3월 2.6조 원 감소로 전환되었고 4월에도 1.3조 원 증가에 그침

< 은행 수신 추이 >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08.10	'08.11	'08.12	'09.1	'09.2	'09.3	'09.4
총계	21.6	9.0	-10.9	-5.5	20.6	-5.1	4.7(921.1)
수시입출식 (요구불예금포함)	2.8	7.3	0.3	-0.1	15.7	-1.0	4.1(262.2)
정기예금	19.0	1.9	-0.6	2.6	4.9	-2.6	1.3(342.7)
CD	0.3	-2.4	-6.4	-3.0	0.9	-0.9	3.5(103.0)
은행채	0.4	2.1	-0.5	-3.0	-2.0	0.4	-2.3(152.6)

자료 : 한국은행 3월 금융시장 동향.

- 은행의 높은 연체율

- 3월에 들어 원화 기업대출 연체율은 2008년 2월말 2.31%에서 2.04%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3월말 현재 2.32%로 전년말 대비 0.62%p 증가함
- 대기업도 2008년 12월말 0.34%에 비하면 2009년 3월말 0.70%로 두 배 가까이 급등

< 국내 원화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

(단위 : %)

	'08.1말	'08.9말	'08.11말	'08.12말	'09.1말	'09.2말	'09.3말
대기업	0.34	0.3	0.34	0.34	0.59	0.62	0.70
중소기업	1.28	1.5	1.87	1.7	2.37	2.67	2.32
기업 전체	1.15	1.3	1.6	1.46	2.05	2.31	2.04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 은행 대출 기피는 기업의 실적 저조로 인한 신용 위험 증가 때문임

- 은행의 원화 기업 대출 증가 저조

- 2008년 7월 전월대비 8.6조 원 증가했던 국내 은행 원화대출은 2008년 12월 -6.6조 원까지 떨어진 후 4월 3.2조 원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정부의 신용 보증 확대 등의 노력에 다소 증가했으나, 2월부터는 대기업 원화 대출이 감소세를 나타냄¹⁾

< 국내 은행 기업 대출 추이 >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08.7	'08.8	'08.9	'08.10	'08.11	'08.12	'09.1	'09.2	'09.3	'09.3 (잔액)
원화대출	8.6	3.9	4.9	7.3	3.5	-6.6	5.8	1.5	2.1	3.2 (472.4)
대기업	3.1	2.1	3.0	4.8	0.9	-2.8	3.3	-1.3	-1.3	0.0 (60.1)
중소기업	5.5	1.8	1.9	2.6	2.6	-3.8	2.6	2.8	3.4	3.2 (412.3)

자료 : 한국은행.

1) 정부는 패스트트랙 유동성 지원 뿐 아니라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34조원 규모 보증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수출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 보증비율 95%서 100%로 상향 조정, 보증업무 처리 임직원에 대해 면책근거 마련하고, 보증업무 7일 이내 처리 하는 등의 대책 등을 추진.

- 1/4분기 산업재, 소재산업 등 주요 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

- 산업재: 실물경기 침체에도 매출액은 54조 7,232억원으로 8.64%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이 2조 9,66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22.7% 줄어들음
- 소재산업: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철강 수요 감소 등으로 1/4분기 영업이익이 1조 5,6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7% 감소함

-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

-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2009년 1/4분기 47로 2008년 4/4분기 56보다는 낮지만 2008년 3/4분기 47과 동일한 수준이고 대기업의 경우, 1/4분기 19로 전기대비 9포인트 떨어졌으나 2/4분기 22로 재상승할 전망
-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2009년 1/4분기 47로 2008년 1/4분기 38에 비해 악화됨
- 대기업도 2009년 1/4분기 19로 전년동기대비 10포인트 상승함으로써 신용위험이 높아짐. 특히 대기업의 2/4분기 전망치는 22로 신용위험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실물경기 둔화로 대기업의 어음결제가 늘어났으며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에 집중함으로써 자금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었기 때문
-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금융권의 부실 자산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신용 경색은 심화될 것임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처가 미흡하여 단기금융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됨

- 리스크 회피로 인한 단기화 현상 심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각 경제주체별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성향이 높아졌고, 이에 자금을 단기상품 위주로 운용하는 경향이 증대됨

- 단기금융상품 수신 42.2조 원 급증

- 총 단기금융상품 규모는 2008년 655.0조 원에서 2009년 3월말 기준 697.2조 원으로 42.2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42.2조 원 증가했는데 시중 부동산자금 중 MMF 자금 증가액은 29.5조 원으로 시중 부동산자금 증가액의 약 69.9%를 차지
- 이외에도 단기 자금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입출식 예금 등으로의 유입액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CD도 은행권이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발행을 늘리면서 큰 폭으로 증대되었음
- 한편, 2008년말 기업의 단기 수신자금 규모는 주로 은행의 단기성 예금과 MMF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금융기관의 주요 단기금융상품 규모 >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3
은행	요구불예금	73.3	83.7	83.1	85.3	86.4
	6개월미만 정기예금	18.7	20.1	25.8	38.1	33.7
	수시입출식 예금	208.0	224.9	211.2	221.8	232.8
	CD+RP+표지어음	84.1	99.5	123.8	125.4	118.4
투신	단기채권형펀드	32.0	35.8	30.2	23.9	27.1
	MMF	64.8	57.1	46.7	88.9	118.4
종금(발행어음, CMA)		10.2	16.9	23.2	23.7	24.4
증권사 RP · 고객예탁금		20.6	27.8	41.8	47.6	55.7
합 계		512.1	566.1	586.0	655.0	697.2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Fnguide.

주 : 1) 단기채권형펀드는 2009년 1월말 기준임

2) 국내 금융기관 6개월 미만 단기 수신자금의 합을 시중 부동산자금 또는 단기유동성이라고 함. 은행권 상품(MMDA, 요구불예금, 6개월 이하 정기예금, CD, RP, 표지어음), 투신권(단기채권형 펀드, MMF), 종금사(발행어음, CMA 예탁금), 증권(RP, 고객예탁금)의 합으로 정의.

3. 시중 부동산자금 활용 방안

○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 신속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수요를 원활하게 지원해야 할 것임

- 첫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 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 대출 채권 등에 대한 자산관리공사 등의 위험 자산 매입을 통해 대출 여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정부의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지속

- 금융권의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등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출의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황기에는 호황기 때에 비해 적립 규모를 낮춰 신용 경색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 셋째, 다양한 금융 상품의 개발

- 중소기업의 대출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증권(MBS)과 같은 금융상품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기업의 신용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을 개발
- 부동산 이외의 투자가 가능한 기업인수합병 펀드 등과 같은 금융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산업 부문으로 자금 흐름이 이루어져 실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넷째,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

- 정부 및 민간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기업의 대출 및 회사채 발행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안전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

현 석 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조 호 정 연구원 (3669-4047, chjss@hri.co.kr)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P)	2009(E)
			2/4	4/4	1/4	2/4	3/4	4/4		
미국	2.8	2.0	4.8	-0.2	0.9	2.8	-0.5	-6.3	1.1	-2.8
EU	2.9	2.6	0.3	0.4	0.7	-0.3	-0.3	-1.6	0.8	-4.2
일본	2.0	2.4	-0.3	0.6	1.4	-4.5	-1.4	-12.1	-0.6	-6.2
중국	11.6	13.0	12.6	11.3	10.6	10.1	9.0	6.8	9.0	6.7
한국	5.2	5.1	5.3	5.7	5.5	4.3	3.1	-3.4	2.2	-4.0

주 : 2008년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4월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7년말	2008년		2009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말	5월 15일	5월 22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3.97	2.21	2.66	3.13	3.36	0.23%p
	엔/달러	111.71	106.22	90.76	98.53	95.21	94.23	-0.98 ¥
	달러/유로	1.4590	1.5755	1.4042	1.3249	1.3495	1.3918	0.0423\$
	다우존스지수	13,265	11,350	8,776	7,609	8,269	8,292	23.49p
	닛케이지수	15,380	13,481	8,860	8,110	9,265	9,226	-39.21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5.90	3.41	3.94	3.79	3.91	0.12%p
	원/달러	936.1	1,046.0	1,259.5	1,383.5	1,257.0	1,247.4	-9.60원
	코스피지수	1,897.1	1,674.9	1,124.5	1,206.3	1,391.7	1,403.8	12.05p

주 : 5월 22일 해외 지표는 전일(5월 21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7년말	2008년		2009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말	5월 15일	5월 22일		
국제 유가	WTI	95.97	140.03	44.61	49.65	56.36	60.34	3.98\$
	Dubai	89.30	136.16	36.45	46.80	57.87	59.23	1.36\$
CRB선물지수	358.71	462.74	229.54	220.40	236.24	242.36	6.12p	

1) CRB지수는 CRB(Comodity Reserch Bear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